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시상식

“제3회 대회는 더욱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

최호열 대회장 시상식 후 제2회 대회 총평서 밝혀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시상식이 3월11일 오후5시에 실내체육관에서 본대회 최호열 대회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과 본지 양주승 자문위원장, 본지 윤이홍 운영위원장,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 장경섭 통리장 연합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웃놀이 시상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1등정중훈 이시훈(소흘읍) 2등 이각중 조기형(신북면) 3등 이국동 차상민(이동면) 우정상 이호운 김도만(창수면) 음원상 김재곤 원근호(가산면) 모범상 김정숙 김경덕(포천동)씨등에게 상금 및 트로피를 전달하고 입상을 축하했다.

줄다리기 시상은 최호열 대회장이 실시했으며 1등은 관인면이 차지해 상금 5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2등은 영북면이 차지해 상금 30만원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3등은 일동면, 아차상은 화현면이 차지했다. 3등은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아차상은 상금 10만원이 지급됐다.

제기차기

시상은 본지 자문위원회 양주승 위원장이 실시했으며 1등은 화현면 변석남 선수, 2등은 관인면 김민자 선수, 3등은 영북면 김기안 선수, 아차상은 포천동 서두봉 선수가 각각 차지해 1등은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2등에는 상금 10만원과 트로피, 3등은 상금 5만원과 트로피, 아차상에는 상금 3만원이 수여됐다.

단체줄넘기 시상은 본지 운영위원회 윤이홍 위원장이 실시했으며 영북면이 1등을 차지해 상금 3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고 2등에는 신북면으로 상금 20만원과 트로피를, 3등에는 포천동이 차지해 상금 10만원과 트로피를 수상했다. 모범상에는 소흘읍이 차지해 상금 5만원을 수상했다.

새끼꼬기 시상은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이 실시했으며 1등 이창복(소흘읍), 2등 김광섭(군내면), 3등 권영호(관인면), 모범상 이정춘(화현면)씨가 차지했다. 1등에는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2등은 상금 15만원과 트로피, 3등은 상금 10만원과 트로피, 모범상은 상금 5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연날리기 시상은 장경섭 통리장연합회장이 실시했으며 이동면에 사는 엄창섭씨가 으뜸상, 차상만씨가 맷시상을 수상해 기념품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후 총평을 통해 최호열 대회장은 “제2회 대회에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3회 대회는 이번대회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멋진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고 밝히고 제3회 대회에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진 지현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본대회 최호열 대회장이 시상식을 마치고 이번대회의 총평을 하고 있다.



본대회 최호열 대회장이 줄다리기 종목 우승팀인 관인면에 상금 50만원과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1등 관인면, 2등 영북면, 3등 일동면, 아차상 화현면)



본대회 최호열 대회장이 웃놀이 종목 입상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등 관인면, 2등 영북면, 3등 일동면, 아차상 화현면)



박윤국 포천시장이 웃놀이 종목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등 소흘읍, 2등 신북면, 3등 이동면, 우정상 창수면, 음원상 가산면, 모범상 포천동)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이 새끼꼬기 종목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등 이창복, 2등 김광섭, 3등 권영호, 4등 이정춘)



포천시통리장연합회 장경섭 회장이 연날리기 종목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름상 엄창섭, 맷시상 차상만씨)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양주승 위원장이 제기차기 종목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등 변석남, 2등 김민자, 3등 김기안, 아차상 서두봉)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윤이홍 위원장이 단체줄넘기 종목 입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등 영북면, 2등 신북면, 3등 포천동, 모범상 소흘읍)



제2회 포천 민속경기대회를 주최한 포천신문 임직원일동이 모든 경기진행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